

전라북도 감염병 주간소식지

2019년 51주차 (12.15.~12.21.)

[제19-51호]



·발행일 2019.12.26. ·발행처 전라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발행인 이주형

·전화 063-250-2911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홈페이지 http://jcid.or.kr

도내 수두·인플루엔자 발생 지속!!

예방접종 시행, 개인위생수칙 준수(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실내 환기 등을 통해 감염병 예방하기

전북 수두

국내 인플루엔자

국외 에볼라바이러스(DR공고) / 메르스(사우디아라비아) / 황열(말리) / 인플루엔자(미국·일본·홍콩·영국)

목차

- 1p) 전북 주요 감염병 동향 요약
- 2p) 국내 주요 감염병 동향 요약
국외 주요 감염병 동향 요약
- 3p) 전북 전수감시 발생신고 현황
- 4p) 감염병 홍보자료

‘이렇게 추운데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에? - 장관감염증을 유발하는 노로바이러스 예방수칙’

지원단 소식

◆ 정기세미나

- 일시: 12월 26일(목) 12:30
- 장소: 지원단 교육실
- 내용: 일반적인 병원체의 이해
- 강사: 정경민 교수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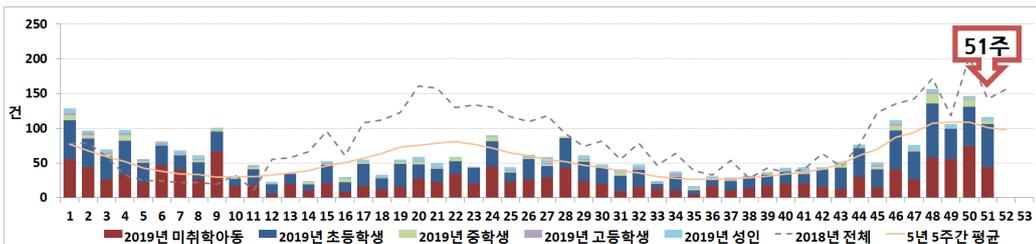
◆ 정기세미나

- 일시: 12월 27일(금) 12:30
- 장소: 지원단 교육실
- 내용: 해외유입 감염병의 개요와 임상적 특성
- 강사: 황주희 교수
(전북대학교병원 감염내과)

전북 주요 감염병 동향 요약

수두

- 금주 신고 116건(지난주 신고 147건)
-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많은 수의 신고가 지속됨
- ➔ 0-12세에서 호발, 비말·접촉 전파, 격리 및 대증치료, 수두를 앓은 적 없거나 예방접종 미실시한 경우 예방접종 권장, 개인위생수칙 준수 당부
- ➔ 보육시설, 학교 등의 시설 내 집단 환자* 발생 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상황을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도록 권고함
- * 3주 이내 (의사)환자가 같은 학급에서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단, 전체기관 인원이 20명 미만인 경우 학급과 상관없이 최소 2명 이상 발생 시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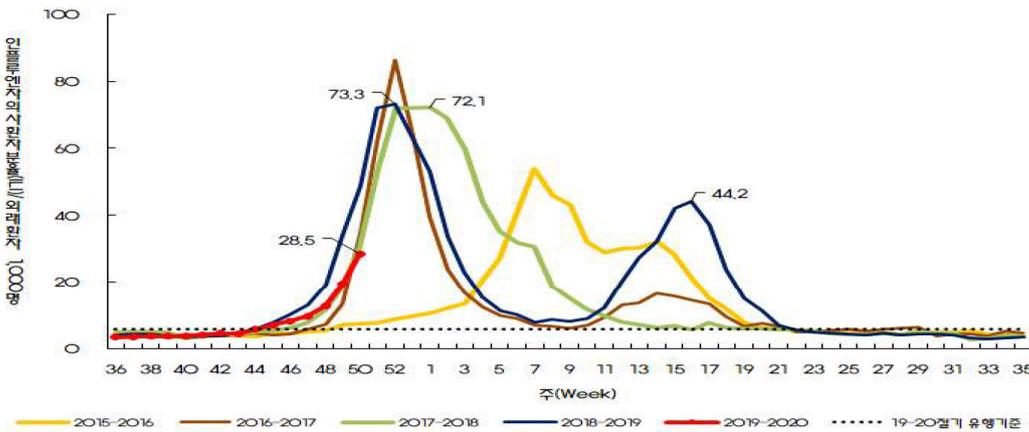


<그림 1> 2019년 전북 수두 신고현황(주차별, 연령별)

국내 주요 감염병 동향 요약

인플루엔자

- 50주차 외래환자 1,000명 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28.5명**(49주 19.5명) (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5.9명/1,000명, `19.11.15 유행주의보 발령)
- 2019-2020절기 시작 이후 50주까지 총 269건 검출 [A(H1N1)pdm09 185건, A(H3N2) 73건, B형 11건]
- ➔ 50주차 연령별 의사환자 분율(ILI) **7~12세 87.9, 13~18세 38.8, 1~6세 34.1**로 학령기아동, 청소년 및 소아 중심으로 발생 증가
-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은 유행기간 동안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 제한,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 ➔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요망



<그림 3> 주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전국)

국외 주요 감염병 동향 요약

에볼라바이러스

- DR공고 `18.5.11~`19.12.24 북동부 중심 환자 3,366명(사망 2,227) 발생

메르스

- 사우디아라비아 `19.1.1~12.17 전역에서 환자 204명(사망 54) 발생

황열

- 말리 `19.9.1~12.15 의심환자 15명(확진 3, 사망 5) 발생
- * 남부 쿨리코로(Koulikoro), 시카소(Sikasso) 주 중심으로 발생

인플루엔자

- 미국 50주차 ILI는 3.0%로 전주보다 증가하였으며 유행기준(2.4%) 초과
- *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발생을 보임
- 일본 49주차 의료기관당 환자수 9.52로 전주보다 대폭 증가
- * 바이러스는 A(H1N1)pdm09의 비중이 큼
- 홍콩 49주차 ILI는 3.1로 전주보다 감소
- * 바이러스 양성률은 2.35%로 유행기준(10.3%) 이하, A형 비중이 큼
- 영국 49주차 ILI는 13.1로 전주보다 증가
- * 바이러스는 A(H3N2), A(H1N1)pdm09 순으로 비중이 큼

질병관리본부 소식

- ◆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백신 지급화 현장 방문(12.18) (클릭 시 연결)
- ◆ 수도 환자 증가, 예방접종과 개인위생수칙 준수 당부(12.16) (클릭 시 연결)
- ◆ 인플루엔자 발생 증가, 예방접종과 개인위생수칙 준수 당부(12.13) (클릭 시 연결)

금주 감염병 예방정보

Q.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알아보기

흔히 독감이라 불리며,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질환입니다.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전염되며, 잠복기는 1일~4일, 평균 2일입니다. 주요증상은 고열(38℃이상), 마른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과 두통, 근육통, 쇠약감, 식욕부진 등 전신증상을 보입니다.

Q. 인플루엔자 4가지 예방수칙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3.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으며 유행상자와 접촉 피하기
4. 예방접종(70~90% 예방효과)

Q. 생활 속 건강한 겨울나기

1. 장갑, 목도리 등 따뜻한 옷 입기
2. 무리한 운동 보다는 가벼운 운동하기
3. 날씨가 추울 때는 가급적 야외활동 자제하기
4. 실내 적정온도(18~20도) 유지하기

출처 : 질병관리본부

전라북도 감염병 전수감시 발생신고 현황 [51주차: 2019.12.15. ~ 2019.12.21.]

구분	전라북도									전국		
	2019년				최근 5년 51주 기준 평균 [†]	동기간(51주)누적			동기간(51주)누적			
	51주	50주	49주	48주		2019	2018	2017	2019	2018	2017	
1군 콜레라	0	0	0	0	0.0	0	0	0	1	2	5	
장티푸스	1	0	0	0	0.0	4	5	3	107	246	121	
파라티푸스	0	0	0	0	0.0	2	2	3	59	51	73	
세균성이질	0	0	0	1	0.0	2	1	6	154	223	107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0	0	1	0	0.0	6	2	3	164	135	138	
A형간염	3	6	1	6	2.2	559	151	196	17,565	2,382	4,346	
2군 백일해	1	0	0	0	0.1	16	13	9	486	941	309	
파상풍	0	0	0	0	0.0	1	3	2	37	30	33	
홍역	1	0	0	0	0.0	10	0	0	285	24	7	
유행성이하선염	11	7	10	10	30.3	722	822	742	15,866	18,904	16,677	
풍진	0	0	0	0	0.0	0	0	1	13	31	7	
일본뇌염	0	0	0	0	0.0	0	0	0	34	17	9	
수두	116	147	106	155	66.4	3,104	4,132	3,794	80,063	93,133	77,510	
급성B형간염	0	0	0	0	0.2	15	13	23	376	401	384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0	0	0	0	0.0	0	0	0	0	2	3	
폐렴구균	1	0	0	0	0.2	23	13	20	510	646	505	
3군 말라리아	0	0	0	1	0.0	3	5	3	559	585	512	
성홍열	3	3	1	1	7.9	234	797	645	7,472	15,576	22,286	
한센병	0	0	0	0	0.0	0	0	0	3	6	3	
수막구균성수막염	0	0	0	0	0.0	0	0	0	17	14	16	
레지오넬라증	2	1	0	0	0.2	9	3	5	461	286	194	
비브리오패혈증	0	0	0	0	0.0	2	1	2	42	49	46	
발진열	0	0	0	0	0.0	1	0	2	23	22	18	
쯔쯔가무시증	5	9	6	25	8.8	401	651	1,061	3,991	6,735	10,484	
렘트스피라증	0	1	0	0	0.1	8	3	10	148	146	103	
브루셀라증	0	0	0	0	0.0	0	0	1	3	33	6	
신증후군출혈열	2	3	1	6	0.8	62	56	45	419	493	521	
매독(1기)	0	2	2	1	0.2	36	38	31	1,158	1,543	1,426	
매독(2기)	1	0	0	0	0.2	16	12	14	546	661	674	
매독(선천성)	0	0	0	0	0.0	0	0	0	23	29	9	
CJD/vCJD	0	0	1	0	0.0	4	2	0	68	79	36	
C형간염	2	4	11	6	-	334	340	164	9,602	10,802	6,196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군(CRE)감염증	6	11	6	8	-	376	433	269	15,062	11,656	5,537	
4군 뎅기열	0	0	0	0	0.1	10	3	2	275	190	167	
보툴리눔독소증	0	0	0	0	0.0	1	0	0	1	0	0	
큐열	0	0	0	0	0.1	19	7	4	221	312	94	
라임병	0	0	0	0	0.0	0	1	3	21	32	31	
유비저	0	0	0	0	0.0	0	0	0	7	2	2	
치쿤구니야열	0	0	0	0	0.0	0	0	1	16	11	5	
신증감염병증후군	0	0	0	0	0.0	0	0	0	0	0	0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0	0	0	0	0.0	18	13	10	223	259	272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0	0	0	0	-	0	0	0	0	1	0	
지카바이러스감염증	0	0	0	0	-	0	0	0	10	6	10	

1) 본 통계는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웹통계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전수감시 자료로 변동가능한 잠정통계임.

2) 각 질병별로 규정된 신고범위(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모든 신고건을 포함한 자료임.

3) 최근 5년간(2014-2018년) 국내에 발생하지 않은 감염병은 제외됨.

4) 일부 감염병은 법령개정으로 추가된 이후부터 합산된 평균 통계임.

- 폐렴구균(2014), MERS(2015), 지카바이러스감염증(2016), C형간염 및 의료관련감염병 2종(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군(CRE) 감염증)(2017)

† 최근 5년(2014-2018년)의 해당 주차를 중앙으로 계산한 5주간의 평균임.



2019.12.12 질병관리본부 KCDC

00시 한 초등학교에서 노로바이러스 의심 집단 장관감염증 발병

00 초교서 장관감염증 증상... 6명 노로바이러스 검출

000 내 학교 노로바이러스 의심 집단설사 증가... 주의당부

00 어린이 집단 장관감염증 원인은 '노로바이러스'

최근 노로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의심되는 집단 장관감염증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살아남아 장관감염증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

자세히 알아보까요? >>

2/8

2019.12.12 질병관리본부 KCDC

노로바이러스의 전파 방법은?

오염된 음식·물

환자 접촉

수도꼭지, 문고리 등 접촉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과 물을 섭취**하였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합니다. 또한,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손을 씻지 않고 만진 **수도꼭지, 문고리** 등을 손으로 만진 후 입을 만지거나 음식물 섭취 시 감염될 수 있습니다.

4/8

2019.12.12 질병관리본부 KCDC

노로바이러스란?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고 현황	800	625	580	388	321	194	161	200	129	139	450	738

* 2018년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표본감시 신고 현황, 질병관리본부 감염병포털, (단위:명)

노로바이러스는 **인체 내 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주로 **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많이 발생하며, **전염성이 강해** 어린이집, 학교 등 집단 시설에서 집단 설사를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원인균 중 하나입니다.

3/8

2019.12.12 질병관리본부 KCDC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의 증상은?

구 토

설 사

복 통

오 한

발 열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대개 음식물 섭취 후 1-2일간의 잠복기를 거친 후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개 2~3일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나, 구토나 설사가 심한 경우엔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5/8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방법은?

일반인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자주 손씻기
(특히, 화장실 사용 후, 기저귀 교체 후,
식품 섭취 또는 조리 전)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특히 굴, 생선, 조개 등 수산물)



물은 끓여서 마시기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방법은?

환자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자주 손씻기
(특히, 화장실 사용 후, 기저귀 교체 후,
식품 섭취 또는 조리 전)



식품을 다루거나 조리하지 않기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없어진 후
2일까지 공동생활 하지 않기

장관감염증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 겨울에도 방심하지 말고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